

국내 SW커뮤니티 현황 및 활동 분석 : Open Source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외협력실 | 김유중(yjkim@software.or.kr)

흔히 SW를 지식정보시대의 인프라 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SW산업의 인프라는 무엇일까. 바로 SW를 구현하는 개발자다. SW산업을 표현하는 특성 중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인력집약형’이다. 다른 업종과 비교해 개발자의 손을 직접 거치는 과정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이 핵심인 SW산업에서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커뮤니티는 산업 현장에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뿜어내는 ‘심장’ 이자 ‘혈관’ 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커뮤니티에서는 개발자들 사이에 실시간 정보 교류와 의사소통이 진행된다. 실제로 개별 업체에 소속된 개발자들도 특정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어려움에 부딪히면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해결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증과 트렌드를 접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커뮤니티다. 글로벌 SW업체의 경우,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대형 커뮤니티에 평가판을 배포해 시장 진출 가능성을 미리 타진하기도 한다.

심장 박동이 약한 국내 SW산업 : 국내 개발자 커뮤니티 현황

100여 개 커뮤니티 활동, 개발자보다 사용자 커뮤니티가 많아

그러면 SW산업의 심장으로까지 불리는 개발자 커뮤니티는 국내 SW산업 현장에서 얼마만큼의 새로운 피를 뿜어낼까. 몇 년 전 미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

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커뮤니티 문화의 천국이다’ 라고 표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만 해도 700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 그럴만도 하다. 앞선 IT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이외에도 인터넷 문화를 양산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커뮤니티에 있다는 얘기다. SW산업에서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시각도 SW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동인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SW개발자 커뮤니티는 기대와 달리 100여 개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교적 회원을 많이 확보해 대외적으로 알려진 커뮤니티는 50여 곳에 불과하다. 양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SW산업에 심장 박동이 약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개인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SW시장 수요를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공개SW 커뮤니티의 경우, 사용자 커뮤니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개발자 커뮤니티는 KLDLP.net 등 2~3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1. 국내 주요 커뮤니티 및 연합체 현황]

커뮤니티명	주요 활동
Korean Linux Documentation Project (KLD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10월 개인 홈페이지로 출발,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리눅스 사이트로 꼽힘 - 리눅스 관련 문서의 한글화 작업이 시초 - 지금은 문서화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프로젝트 호스팅, CodeFest 개최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 - 회원수 : 약 4만 명
Debi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10월, 공개SW 운영체제인 데비안(Debian) 사용자들이 모여 홈페이지를 개설 - 공개SW 세미나 및 데비안 컨퍼런스를 개최 - 「리눅스 서버 최강자 데비안 GNU/리눅스」서적 출판 - 회원수 : 회원제는 아니나 1일 약 5~600명 방문
GN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4월에 개설된 그놈(GNOME)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 - 그놈 환경의 번역 및 국제화 패치 작업 주도 - 회원수 : 약 400여 명
PHP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 - PHP라는 웹 스크립팅 언어 개발자를 위한 커뮤니티 - 2005년 4월 법인화하여 PHP 지역인증, 교육, IT서비스 등 비즈니스 활동 진행 - 1일 페이지뷰 약 30만건

한국리눅스유저그룹 (L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지역별로 소모임 형태로 활동하던 리눅스 사용자들을 통합해 전국 규모로 설립 - 리눅스 관련 정보, 팁, 사용법 등을 공유 - 2000년 3월 대구 계명대에서 첫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 매년 리눅스 관련 기술 세미나를 개최 - 회원수 : 약 7천 명
아파치 유저그룹 (Korea Apache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8월 웹서버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개인 홈페이지에서 시작 - 국내 웹서버의 대표적인 개발환경인 APM(Apche, PHP, MySQL)을 위한 사용자 커뮤니티
한국임베디드리눅스 프로젝트 (KE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에 개설된 국내 대표적인 임베디드SW 커뮤니티 - 초보에서부터 전문수준에 이르는 다양한 강좌 진행 - 회원수 : 약 1,500명
Software Test Engineer Network (ST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10월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수행하는 실무자 들을 위한 전문 그룹 - SW 테스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관심 있는 개발자도 다수 포함
데이터베이스사랑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개설 이래 LDAP와 오라클, 인포믹스, MySQL 등 데이터베이스 관련 게시판 운영 - 국내 데이터베이스 커뮤니티의 최고봉으로 손꼽힘
한국자바개발자협의회 (J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3월 자바라인, 자바랜드, 자바카페, 하이텔자바동, 자바스터디 등 5개 사이트를 연합 - 현재 18개 자바 관련 커뮤니티를 회원으로 두는 등 '커뮤니티 들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연합 (S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7월 솔라리스 스쿨, 솔라리스 테크넷, 자바유저스넷, 자바크래프트, 파란자바동, KELP 등 국내 대표적인 15개 SW 개발자 및 엔지니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족
데브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데브피아), 자바(자바누리), 오픈소스(PHP스쿨) 3대 진영이 연합 - 회원수가 50만 명에 달하는 커뮤니티

* 출처 : 커뮤니티 사이트 및 언론기사 자료 정리

국내 SW환경에서 개발자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SW기업에서 조차 커뮤니티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다행히 최근 국내 주요 포털기업과 IT서비스기업 등이 개발자 커뮤니티 행사에 후원을 시작하고 있지만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IBM,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오라클 등 글로벌 SW기업의 손길

이 더 잦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내 SW기업에서 소속 인력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지원문화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했고, 기업 역량 또한 글로벌 SW기업에 비해 다소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커뮤니티란 참여와 공유, 개방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동인에서 출발하지만 함께 SW생태계를 일궈가는 구성원으로서 SW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사람, 즉 개발자가 모이고 자라는 커뮤니티에 대한 기업의 지원은 일종의 투자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동적 참여로 이어지는 글로벌 커뮤니티 활동

이렇게 국내 커뮤니티의 심장 박동이 약하다보니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국내 개발자들의 활동은 저조하게 마련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더글라스 썬마이크로시스템즈 글로벌 마케팅 부사장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우수 자바 개발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자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지요”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자바 관련 개발자들은 약 6만~7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국제 커뮤니티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는 손에 꼽는 수준이다. 영어라는 언어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아파치, 제이보스, 리눅스, 자바, 모질라 등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소스코드를 고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개발자는 100여 명에 불과하고, 프로젝트 리더격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10명도 채 안될 정도로 활동이 미미하다. 국내 개발자들은 대부분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기술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 수동적인 참여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피를 끊임없이 뿜어내는 심장으로 키운다 : 외국 정부 및 글로벌 SW기업의 커뮤니티 지원 사례 및 전략

앞서 언급했듯 커뮤니티는 자발적 모임이다. 그만큼 자발적 활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SW라는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자생력을 이어가고 신선한 피를 끊임없이 뿜

어내려면 정부나 SW기업의 지원도 무시할 수 없다. 개발자와 더불어 정부, 기업 모두 SW라는 하나의 생명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기반이 안정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부 주도의 오픈소스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커뮤니티가 지속적인 자생력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2. 커뮤니티를 연계한 정부 주도의 개발프로젝트 사례]

사 례	주요 내용
미국 국방부의 OTD (Open Technology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발전과 새로운 변혁에 따른 개발인력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 - '지구공간기반구조' 등의 분야에서 외부 공개SW 커뮤니티와의 협력체 구성을 추진
미국 대학 중심의 Sakai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간 콘텐츠 공유를 위해 추진 - 미시간,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포함하여 전 세계 105개 대학들이 커뮤니티에 참여
프랑스 지방정부의 ADULLACT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 출처 : SW진흥원 정책연구센터, '해외 공개SW 정책 분석 및 시사점'

상대적으로 커뮤니티 기반이 약한 아시아 국가들도 정부가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의 경우,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자국의 커뮤니티들을 대량 육성하여 자국의 개발자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자국의 SW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글로벌 SW기업의 개발자 커뮤니티 지원 체계를 보면 개발자 커뮤니티는 일종의 상생관계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커뮤니티가 자사 제품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기술발전을 이끌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오라클의 경우, 개발자와 커뮤니티를 위해 연간 수 백만 달러를 투자할 정도다. 커뮤니티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3단계로 이뤄지는데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Educate & Expand' 단계로 오라클 기술 커뮤니티인 OTN(Oracle Technology Network)를 비롯해 JCO와 같은 외부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두 번째 단계는 'Convert & Build loyalty' 로 Oracle Developer Day, 무료 기

술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인 'Expert' 단계에서는 뛰어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나 이벤트에 우선적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커뮤니티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으며, 썬마이크로시스템즈, IBM 등도 자사제품과 관련 커뮤니티를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커뮤니티 활성화는 SW강국의 전제조건 : 국내 SW기업의 개발자 커뮤니티 끌어안기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나 기업에서도 단발성 위주의 커뮤니티 지원에서 벗어나 커뮤니티 연합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추세다. 특히 웹2.0 시대를 맞아 인터넷 포털기업을 중심으로 오픈소스 개발자 지원 전담부서를 개설하는 등 커뮤니티 끌어안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어 고무적이다. Daum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서버 호스팅을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티 지원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엠파스도 국내 최대 공개SW 커뮤니티인 KLDAP에 운영서버와 장비를 기증하는 등 개발자들을 위한 기술 세미나와 교육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웹2.0 시대에는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속도가 중요한데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커뮤니티에서 서로 토론하고 직접 소스 코드를 수정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가장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웹2.0이라는 새로운 웹생태계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구글만 하더라도 Google Code를 만들어 공개 SW를 호스팅하고, Summer of Cod 개최를 통해 커뮤니티와 전 세계 대학생들을 연결시키는 등 웹2.0 환경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커뮤니티 육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흔히 산업 육성의 궁극적인 결과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 SW산업의 경쟁력도 개발자들이 다른 나라 종사자들에 비해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에 따라 판가름 난다. SW산업의 핵심인프라인 사람, 개발

자들이 소통하는 커뮤니티가 끊임없이 기업과 산업발전의 교량 역할을 하는 구심점 노릇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는 SW기업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조원영, 장대철, 안병훈, 2006. 12, 공개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위상구조 연구
- 윤석찬, 2006. 12, 공개SW리포트 오픈소스의 꽃 '커뮤니티'
- SW진흥원 정책연구센터, 2007. 3, 해외 공개SW 정책 분석 및 시사점
-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2005. 8, 대한민국의 IT커뮤니티 올가이드
- 최태원 티맥스소프트 전략기획팀장, 2008. 4.22, 우리는 'SW강국' 인가?, ZDNet Korea
- 황치규 기자, 2007. 6.24, "한국 오픈소스 커뮤니티, 세계와 연대해야", 블로터닷넷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본 저작물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